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 학위논문

내국인 인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현실갈등 유발 요인을 중심으로 -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이 경 주

내국인 인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현실갈등 유발 요인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최 창 용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9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및 정책학 전공
이 경 주

이경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2월

위 원 장 최 태 현 (인)

부위원장 우 지 숙 (인)

위 원 최 창 용 (인)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3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3

2. 연구 방법 및 자료 분석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5

제 1 절 이론적 배경 5

1.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 5

2. 자민족중심주의의 개념 6

3. 세계화의 개념 7

4. 보수적 문화 의식의 개념 7

5. 현실갈등 유발 요인의 개념 8

제 2 절 다문화 수용성 관련 선행연구 고찰 9

1. 이주민 유입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과 다문화 수용성 10

2. 직간접 접촉 경험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12

3. 다문화 수용성과 자민족중심주의 및 보수적 문화 의식 14

4. 다문화 수용성과 세계화에 대한 의식 18

5. 다문화 수용성과 현실갈등이론 22

제 3 장 연구 설계 27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가설 27

1. 연구의 분석틀 27

2. 연구 가설 29

제 2 절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32

1. 독립변수 32

2. 종속변수 33

3. 조절변수 ····· 33
4. 통제변수 ····· 34
제 3 절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 35

제 4 장 종합적 논의 ····· 37
제 1 절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분석 ····· 38
1. 측정도구의 구성: 종속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 통제변수 38
1) 종속변수 ····· 38
2) 독립변수 ····· 38
3) 조절변수 ····· 38
4) 통제변수 ····· 40
2.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 40
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분석 ····· 42
제 2 절 분석결과 ····· 44
1. 조절효과 분석 및 가설 검증 ····· 44
1)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학력의 조절효과 ····· 44
2)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월평균 가구소득의 조절효과 ····· 46
3)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취업 여부의 조절효과 ····· 50
2. 가설 검증 요약 ····· 52

제 5 장 결론 ····· 53
제 1 절 결론 및 연구의 한계 ····· 53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 56
1. 한국사회 구성에 대한 신념과 인식의 변화 ····· 56
1) 귀속적 기준의 약화 ····· 57
2) 경제적 여건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58
2. 다문화 교육, 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 방안 ····· 58
1) 다문화 교육 및 다문화 활동 세부 프로그램 개발 ····· 59
2) 일상생활 속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60

3)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이미지 제고 61
4) 다문화 수용 규범 정립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 ····· 62

참고문헌

표 목 차

[표 1] 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인식 조사 ····· 24
[표 2] 가설정리 ····· 31
[표 3] 측정문항의 구성 ····· 34
[표 4]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 38
[표 5] 현실 갈등 유발 요인에 관한 기초통계량 ····· 39
[표 6] 통제변수 통계량 ····· 40
[표 7]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 41
[표 8] 주요 변수 간 상관분석 ····· 43
[표 9]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학력의 조절효과 ····· 45
[표 10]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월평균 가구소득의 조절효과 ····· 47
[표 11]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취업 여부의 조절효과 ····· 51
[표 12] 가설 검증 요약 ····· 52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 28
[그림 2] 월평균 가구소득의 조절효과 양상1 ····· 48
[그림 3] 월평균 가구소득의 조절효과 양상2 ····· 49

국문초록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실태를 고찰하고, 자민족중심주의와 세계화 의식이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현실 갈등 유발 요인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고자 월평균 소득, 학력, 취업 여부와 같은 변인들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조절 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를 위해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데이터를 활용했고, 다중회귀분석 및 기초통계를 통해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에는 낮은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학력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았지만, 취업 여부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월평균 가구소득이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자민족중심주의는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조절했지만, 학력과 월평균 가구소득은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자민족중심주의는 다문화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세계화에 대한 인식은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경계해야 할 가치는 자민족중심주의 정체성이며 세계화에 발맞춘 그로 향한 인식은 오히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학력별, 소득별, 취업상태 및 직업별 집단에 따라 다양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한국 사회 구성에 대한 신념과 인식의 전환 교육 및 법 제도가 함께하는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주요어: 다문화 수용성, 자민족중심주의, 세계화, 현실갈등인식, 이주민

학 번: 2020-2269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다양성(Diversity)’은 현대사회를 관통하는 화두 중 하나이다. 과거와는 달리 탈중심화, 초-다원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다양성’의 기준은 성(性)이나 인종은 물론 계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치·경제·사회적 방면에서 다양성 개념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인다. 그 이유 중 하나로 국내 이주민 및 외국인 노동자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 기피로 단순노동자들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고,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 관리 정책을 통한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을 꾀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대도시권 위주의 성장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하였고 내국인이 꺼리는 농어촌 지역 일자리에 외국인 노동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낮은 출생률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2004년 이후에는 전체 혼인 건수 가운데 국제결혼율이 1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최근까지도 많은 결혼이주여성과의 국제결혼 성사로 다문화 가정을 일구고 있다(정혜원, 2017). 통계청에 의하면 2021년에는 코로나 질병 확산으로 다소 체류 인구수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2040년까지 이주민은 352만 명인 총인구 대비 6.9%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에 체류한 외국인들이 전체인구의 1%에 미쳤던 것을 고려하면 다양한 국적의 인구 이동이 얼마나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한국 사회는 낮은 다문화 수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가 혈통에 의한 단일 민족정체성 및 유교주의가 강하고 이주민에 대한 온정주의 경향, 부정적 편견과 같은 모순적 측면이 존재하며 국가 차원에서 다문화주의 제도가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래의 다문화 현상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가의 문제는 많은 학문적 및 실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최근 이에 대한 실증 연구들이 다수 제기된 바가 있다(김이선 외, 2007; 황정미 외, 2007; 윤인진 외, 2009; 인태정, 2009; 맹진학,2009)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과 인식 및 초보적인 태도를 형성해가고 있을 뿐,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은 일반 의제에 대해 일관적 인식을 확립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김이선 외, 2007) 따라서 우리나라의 한 구성원으로서 외국인 노동자 및 이주민의 증가에 우리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실증적인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흐름의 연장선으로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최근의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 본 연구는 내국인의 인식 요인을 바탕으로 내국인의 다문화 수용 차이를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독립변수인 내국인의 보편적 인식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유교주의적 가치와 자민족중심주의 등을 변수로 활용하여 종속변수인 내국인의 다문화 수용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조절 요인으로 월평균 총소득, 취업상태, 학력이 현실 갈등 유발 요인으로써 내국인의 인식이 다문화 수용 의사에 주는 영향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분석한다. 이는 한국의 다문화 현상과 사회 구조적 간의 관계성을 드러내 주고 함축함으로써, 향후 다문화 사회에 대한 다양한 영역의 정책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전국 범위 안에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전반적인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즉 수용할 의사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 즉 그 대상에 대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이다. 연구 대상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이며, 총 20,841명의 자료 중 결측치가 있는 자료 18,361명을 제외한 2,479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KGSS 2018년 자료의 표집절차는 전국주민등록전산 자료로부터 다단계지역확률표집(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 방법에 의거해 표본을 추출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절차 총 3차로 나뉜다.[1)]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화에 대한 인식, 자민족중심주의에 관련 설문조사 문항을 수집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구체적으로 자료가 수집된 2018년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변수인 세계화에 대한 인식, 자민족중심주의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동시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자료 분석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내고 그 영향

1) 2003-2021 표본설계는 https://kgss.skku.edu/kgss/data.do에서 참고.

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검정하기 위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간 다중회귀분석이 연구의 핵심이다. 다중회귀분석은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통계적 방법에 의해 추정하는 회귀분석의 일종으로, 종속변수는 하나이고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회귀 모델에 대한 분석을 행하는 방법이 다중회귀분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 중의 하나이다.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월평균 가구소득, 취업 여부, 학력 등의 요소를 추출하여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 26.0을 사용하였다.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의 일반적 경향성과 자료의 정규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주요 변수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세계화에 대한 인식, 자민족중심주의와 다문화 수용태도 간의 관계를 월평균 소득, 취업 여부, 학력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

다문화 수용성(multicultural acceptibility)은 다문화주의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실현되는가를 판가름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란 대체로 하나의 국가 내부에 다양한 문화, 인종, 민족집단들이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복수의 문화가 공존한다는 것을 긍정하면서 공존하는데 목적이 있는 이념체계와 단일한 개인, 집단 또는 제도에 집중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는 사회학적 상황 또는 규범적 관점이라 볼 수 있다(윤인진, 2008). 수용(acceptance) 한다는 것은 다른 문화가 자기 문화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이선 외(2007)는 다문화 수용성을 “다문화 지향성으로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로 정의한다. Min. 외(2010)는 자신과 다른 구성원에 대하여 집단별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조화로운 공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협력하고자 하는 태도로 다문화 수용성을 정의하였다. 황정미(2010)는 다문화 수용성을 단지 문화적 차이에서 그치지 않고 성원권이라는 개념 차원으로 사회적 인정의 문제로 확대하기도 하였다. 안상수 외(2012)는 다문화 수용성을 황정미(2007)와 비슷한 맥락에 더해서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고, 다양성은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의 하위영역으로, 관계성은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 정서, 상호 교류 행동 의지의 하

위 영역으로, 보편성은 이중적 평가와 세계시민 행동 의지의 하위영역으로 세분화하였다. 윤인진·송영호(2011)은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태도와 외국인에 대한 인지적 위협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2. 자민족중심주의의 개념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은 윌리엄 섬너(William G. Sumner)에 의해 처음으로 사회과학에 적용되어 있으며 '자신이 속한 집단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다른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 관점'이라고 설명한다.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이나 언어, 관습, 종교 등의 문화가 우월하고 차별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 집단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Sumner은 집단에 대한 정서과 충성을 기준으로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을 구분하고, 내집단에 대한 선호적 태도가 외부 집단에게 비선호적인 태도로 작용한 결과 나타나는 구조라고 설명한 바가 있다. 이 밖에도 Shimp & Sharma(1987)은 자신이 속한 문화와 가치관이 다른 집단들은 배척하고, 동일한 집단만이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자민족중심주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자민족중심주의는 애국이나 보수 성향과 매우 관련이 높은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Shimp & Sharma, 1987; Shimp & Shin, 1995). 따라서 한 집단의 고유의 윤리, 국가의 상징성 및 가치가 자존심 형성의 근거가 되고, 반면에 다른 집단의 상징은 경멸할 대상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Levine & Campbell, 1972; 양계민, 2009 재인용) 이러한 개념은 다른 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또는 집단이 자기 삶이 가장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이라 느끼면서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집단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하거나 무시해도 좋다는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 Han(1988)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자민족중심주의 경향은 나이가 많을수록, 유색인종보다는 백인일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블루칼라(Blue-collar)일수록 강한 것으

로 보고되었다.

3. 세계화의 개념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용어는 1980년대 중반 마이클 포터(Michael E. Porter)에 의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을 받게 되었다. 마이클 포터는 미국산업 경쟁력에 대한 미국 대통령자문위원회 보고서에서 세계화와 경쟁적 우의라는 개념을 소개했는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화를 단순히 “재화와 서비스 및 금융자본, 그리고 기술이 무제한으로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양(量)과 양상(樣相)의 증대(1997)”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세계화는 그보다 더 포괄적이고 광대한 범위로 사용되고 있다. 세계화는 재화, 상품과 서비스를 넘어 사람, 아이디어, 그리고 문화가 국경을 가로지르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국가 간의 교통·통신·노동·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어 사회·경제적 생활 공동체의 범위가 국가를 초월하여 확대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없앰으로써 세계를 사실상 단일화를 의미한다. 이는 공동체의 통합이나 확장의 의미를 내포한다. 반면, 세계화와 함께 국제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주권 국가의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도 발생한다. 국가의 구성요소에 실질적인 변화와 국민개념의 상대화, 영토와 국경의 의미 약화, 주권의 상대화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세계화에 따른 국가 역할의 한계성과 국가에 대한 헌법적 요청 간 상호 모순 내지 충돌 상황도 발생한다. 이장희(2021)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 원리에 관한 국가의 역할에 중대한 제약을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국가 역할의 축소 부분과 함께 국가 역할의 유지·강화 필요성을 돌아보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4. 보수적 문화 의식의 개념

본 논문에서 말하는 보수적 문화 의식이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의 맥락에서 '전통주의'라고 불리는 인간의 일반적 심성이나 태도를 지칭한다. 이 경우 보수주의란 친근한 것에 대한 애착과 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신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수적 태도는 인간의 본성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은 과거로부터 물려받고 자신에게 익숙한 삶의 유형에 애착과 친근함을 느끼고, 그러한 삶을 위협하는 익숙지 않은 변화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적대적이고 불신하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강정인, 2003). 따라서 '보수적'이라 함은 "전통적", "인습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이에 대응하여 "진보적"이라 함은 "진취적", "개방적", "실험적"인 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박호성, 1989).

5. 현실갈등 유발 요인의 개념

현실갈등이론(Realistic Conflict)은 집단 갈 갈등을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이다. 이 이론은 희소한 자원을 놓고 집단 간에 경쟁이 벌어지면 적대적으로 변하여 집단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Cambell 1965; 민지선·김두섭 2013). 이 이론은 일자리, 사회적 비용 및 세금 등 내국인과 이민자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분리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내국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한정된 가치 있는 자원을 소유하지 못하며, 공공재정에 실질적 부담을 초과한다고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내국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주관적인 평가가 집단 내에서 공유되고 부풀려 편견으로 자리 잡을 경우 사회적 차별 및 빈부격차 심화, 사회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 수용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현실갈등이론과 자주 언급되는 위협의식은 집단 간 경쟁이론(Quillian 1995; Scheepers et al, 2002) 혹은 집단 위협이론(Blalock, 1967)이라 칭

하기도 한다. 소수자인 외국인의 규모가 증가하면 다수자인 내국인의 자원이나 권력, 이익 이해관계 등이 침해받고 위협받는다고 느껴져 불안감 및 적대적 감정이 커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Blumer(195ㅁㄹ8)는 위협의식과 관련하여 다수집단이 자신들의 특권에 위협을 느낄수록 외집단에 대해 더욱 많은 차별과 편견을 표출한다고 보았다. Bobo(1983)는 Blumer의 이론을 수정하여 주류 집단이 소수 인종집단에 대해 갖는 편견과 고정관념은 소수집단이 다수집단의 특권보다 실질적인 관습들을 위협한다고 느낄 때 생긴다고 보았다. Quillian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 그 집단 인구의 증가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실질적인 경쟁 관계에 놓였을 때 위협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수의 연구자는 권위주의적 성향, 인종주의, 상징적 인종주의, 편견, 보수적인 성향 수준과 같은 요인들이 현실 갈등 유발 요인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을 더욱 크게 저하한다고 보았다(Staub 1990; Quillian 1995; Coenders et al. 2002; Pettigrew 2003; Raijman & Semyonov 2004; 윤인진·송영호 2011, 155에서 재인용.)

제 2 절 다문화 수용성 관련 선행연구 고찰

경제성장에 따른 임금 상승, 학력 수준의 향상, 인구증가율의 둔화와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1980년 말부터 저숙련 인력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내국인의 일자리 보호와 국민 정서와 같은 이유로 저숙련 외국인을 근로자로서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설동훈, 1999), 그 대신에 정부는 1991년 11월 해외투자기업이 인력 활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연구생제도를 도입하여 연수사증 발급하고 연수생 신분으로 도입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새로운 노동 인구 유입으로 외국인 노동자는 증가하였고, 더불어 2000년대 초반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영위토록 하는데 목적인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지원 정책 등이 펼치면서 농

촌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급증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 수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5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가정이 언론을 통해 주목받고,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주요 정책과제로 천명함에 따라 <다문화 정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등과 같은 다양한 하위 영역에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는 크게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수 집단에 대한 내국인의 전반적인 다문화 수용 태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등이 있다.

1. 이주민 유입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과 다문화 수용성

지난 10년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이민자가 빠르게 증가하였다.[2]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에 약 53만 명이었던 체류 외국인 수는 2013년 144만 명으로 늘었고, 2019년에는 220만 명을 넘는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 2040년까지 352만 명인 총인구 대비 6.9%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도 아주 빠르게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주민 유입은 국내 노동시장에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국인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나 노동시장의 효과에 대한 국내 논문은 그리 많지 않다.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로는 강동관 외(2011)가 있는데 2008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숙련 및 비숙련 포함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당시 총생산유발효과[3]는 29조

2) 통계청에서는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맞추어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과 귀회허가자를 포함하여 '이주민'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4,97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9조 8,850억 원이며, 전문직의 총생산유발효과는 4조 4,4950억 원, 비전문직의 총생산유발효과는 25조 10억 원, 전문직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조 9,400억 원, 비전문직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조 9,450억 원에 이른다.

한편, 동질적인 노동자를 가정하는 노동 수요-공급 모형에 따르면 이민자의 유입은 노동 공급은 증가시키지만, 그에 따라 내국인의 일자리와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제조업, 건설업 등 내국인과 외국인 간 일자리 경합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이주민이 국내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노동시장의 대체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단순직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 중 중졸 이하의 단순직 노동자와 대체 관계가 있으며(김정호, 2009), 건설업, 음식 숙박업에도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설동훈, 이해춘, 2005; 이규용·박성재, 2008; 유경준·이규용, 2009). 또한 최경수(2011)의 연구에서도 외국인의 유입이 대체재 관계인 단순직 노동자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 숙련직에 대해서는 오히려 노동의 임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고숙련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완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내국인과 이주민 노동자 간에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는다면 내국인의 고용과 임금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주민 유입은 어떤 이민자가 유입되는지 그리고 내국인의 노동자 구성에 따라서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민의 유입의 실증적인 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실증적인 결과에 따라서 이민 관련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실제로 이민자의 유입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면 이민 인력의 유입은 선별적으로 검토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대로,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3) 생산 유발 효과(生産誘發效果; Production inducement effects)란 어떤 산업의 생산 증가가 곧바로 다른 사업의 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를 말한다.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산업이나 지역별로 이질적인 효과가 발견된다면, 보다 정교한 정책적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2. 직간접 접촉 경험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국내에서는 오늘날 미·중 패권과 한국과 중국 간의 국제관계, 중국인 등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증가 추세 등으로 인한 내국인들이 중국 출신 이주민을 포함하여 이주민 소수자 집단을 한국 사회의 침투와 정서적 불신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다. 최근 코로나 19와 같은 질병 확산 속에서 국가의 경제력이나 국방력만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 내 소수자들, 특히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증가 및 온·오프라인을 통한 혐오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전부터 외국인의 대거 유입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였지만, 이는 이질적인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신문, 인터넷, TV 뉴스 등 대중매체를 통해 외국인이 일으킨 사회적 문제를 접하게 되면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이민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논문의 결과도 있다(노성훈, 2013).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적·경제적 차별과 배제정책으로 인해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에는 만연하게 이주민 집단과 내국인 집단으로 이분법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 이들에 대해 더욱 비우호적인 인상과 태도에 영향을 주었다 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동정심이나 연민을 느끼지만, 결국에는 이들을 주변화(marginalization)하는 태도는 집단을 구별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게 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과 이주민과의 사회적 거리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내국인이 아닌 다른 구성원이 근린(neighborhood)에 존

재한다는 '물리적 거리감' 외에도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거리감'도 고려할 필요성이 보인다. 지역과 사회적 거리감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 대표적으로 위협이론(threatening theory)과 접촉이론(contact theory)이 있다. 위협이론은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을 높인다는 것이고, 접촉이론은 타문화와의 접촉(intercultural contact)을 통해 상호교류를 함으로써 이민자 집단에 대해 이해하고, 다른 집단과의 차이를 다양화로 인정하며 협력이 증대되고 부정적 고정관념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국내 연구에서 몇몇 실증적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원주민의 거주지역 내 외국인의 비율 상승은 위협이론에 따라서 이주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만(민지섭 외, 2013), 접촉이론에 따라서는 친분의 영향으로 인해 이주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다는 주장도 있다(이다은 외, 2016). 구체적으로 민지선 외(2013)는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사회적 거리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체 외국인 집단에 대해 외국인 비중이 정(+)의 관계를, 교육년수, 도시화 수준, 성별에는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다은(2016)은 접촉이론과 관련하여 도시와 농촌에서 외국인 비율이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분석하였으며, 사회 갈등 측면에서 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 갈등을 더 크게 느끼고, 문화 측면에서는 도시가 농촌보다 외국인의 문화적 기여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윤인진·송영호(2011)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수용성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다문화 수용성이 이전에 비해 높아진 원인에 대해서는 외국인과의 접촉과 교류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촉가설에 대한 분석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인종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한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만(김경근 외, 2015; 양계민·이우영, 2016; 황정미, 2016),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외국인과의 접촉 기회가 많을수록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나 위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현식, 2010; 원숙연, 2011; David, 2005). 이밖에도, 접촉의 양적 측면 이외에도 질적인 측면, 즉 긍정적 접촉인지 혹은 부정적 첩족인지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긍정적 접촉은 편견의 감소로 이어지나, 현

실에서는 소수민족 집단과 긍정적 접촉보다는 부정적 접촉 경향이 우세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접촉의 증가는 편견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Vintin et al. 2017; Graf et al. 2014). 또한 부정적 접촉이 편견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 접촉이 편견에 감소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크다는 보고도 있다(Barlow et al. 2012).

양계민·정진경(2005)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태도를 설명하는 데에 접촉 경험 및 접촉의 수준의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도 다루었다. 북한이탈주민과 접촉 경험이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을 비교하여 긍정적, 부정적 정서 및 연민의 정서 측면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는 결과를 발견했고, 더불어 접촉이 있는 집단 내에서도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접촉의 빈도 및 성격의 중요성을 밝히기도 하였다.

3. 다문화 수용성과 자민족중심주의 및 보수적 문화 인식

한국 사회는 일찍부터 혈연적 문화적 공동기반과 단일국가 안에서 살아온 역사 속에서 민족적 동질성과 공동 운명 의식을 키워왔다. 이에 따라 한국은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통합적이고 동질적인 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개인이 국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전통이 결여되기도 한다. 신광영·정철희(2000)는 한국인들이 시민들 간의 계약으로서의 국가의 성립이라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관점이 정착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내면화되어 사람들의 사고와 행위 양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교주의적 가치와 다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나 행위를 말할 때 유교적 가치를 함께 언급하는데, 통상적으로 '유교적 가치'는 그 자체로 다양한 요인들을 포괄하고 있어 한 가지고 분명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혈연중심적 가족주의, 개인적 권리보다는 집단적 덕목과 조화를 우선시하는 공동체주의, 가부장적 위

계질서 및 권위를 강조하는 가치 규범과 행위 양식으로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전통적 가치의 특성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을 문화적으로 포용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장하경(1996)연구에 따르면,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제례는 폐쇄적 혈통성의 강조나 가부장적 성격으로 유지되고 있다. 생활양식의 변천에 따라 혼례는 알맞게 적응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의미나 구조에 큰 변함없이 가족주의와 협동주의라는 틀에 의하여 존속되고 있으며, 이 원리는 다른 현대적 사회생활에까지 적용하고 있다.

보수적인 성향은 문화의 전통성을 보호하고 국가 자긍심을 높이는 효과도 보인다. 그러나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강한 신념이나 믿음은 특정한 행동을 유발하는 데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고정된 관념은 차별과 사회적 거리감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 전이될 수 있다. 서구의 다문화주의의 등장과 확산은 소수집단을 문화, 인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개인의 권리주체로 포용하는 자유주의 사상에 힘입은바(오경석, 2007; 김창근, 2008), 전통적 유교주의적 가치는 다원주의적·자유주의적 가치와 상충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다문화 현상에서 외국인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의 부계 혈통의 가족을 지속 지키려는 목적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점과 한국의 가부장주의에서 연유하는 온정주의적 성격이 내재한 점은 보수적인 가치와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가 상당히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한국은 한민족이라는 민족성과 국가가 일치하고 있어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이 국민정체성(national identity)과 많은 부분을 일치한다.[4] 이때 혈연적 뿌리를 같이 하는 민족연대성과 공동체 결속을 강

4) 국민정체성은 혈통적-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ethnic nation'의 요소와 정치적-법적 측면을 강조하는 'civic nation'의 요소가 혼재하고 있는데, 'civic nation'의 요소가 정체성의 주요소가 되는 국민국가가 다인종주의와 다문화주의를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Brubaker, 1992; Smith, 2000). 혈통적-문화적 특성은 귀속적(ascriptive)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반면, 정치적-법적 특징은 선택적(voluntaristic)이고 성취된(accomplished)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변화가 용이하며, 따라서 정치적-법적 요소를 국민의 요건으로 생각하는 경우 타인종이나 문화적

조하는 수단의 하나는 한국 민족의 우수성을 주장하거나, 한국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다. 남원진(2004)에 따르면 한국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껏 존재한 이유에 대해 '문화민족'으로서의 한(韓)민족정체성을 찾는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K-POP 유명세 상승, 예능 콘텐츠 수출, 예술계 다수 인재 발굴 등 탁월한 재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문화적 측면에서 민족적 우월성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다.

우리나라 민족의 우수성과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은 특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윤인진(2002)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언어와 문화적 동화에도 불구하고 강한 민족정체성과 애착을 유지하고 있으며, 민족성이 상징적인 수준을 사회관계에 중요한 기초가 되고 특정한 소수 민족집단의 성원으로 구별되는 인식과 그 과정이 재외 한인의 민족정체성과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신영(2015)은 강한 민족정체성을 지닌 경우,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니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하듯, 한민족정체성은 오랜 시간 동안 한민족의 뿌리를 지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가치로 여겨왔으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 한민족으로서의 긍지를 갖는 것, 한민족이 하나의 공동운명체라는 것, 국가 번영을 위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 민족정체성의 기능에 대해 상반된 주장들이 존재한다.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에 떠오름에 있어 한국 사회가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를 형성하는 데에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자민족중심주의'가 국가정체성 및 민족정체성과 함께 자주 언급된다. 자신이 소속된 집단이나 사회에 대한 애착 정도 또는 정체성은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동료시민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최현, 2007).

특히 태도, 신념, 행동은 내집단과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민족적·인종적 평가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Vedlitz and Zahran(2007)은 내집단에 대한 정체성이 높을수록 이주민과 같은 외집단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거리감 및 다문화 수용성이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집단애(group attachment) 및 사회정체성과 관련된 요인들이 다른 집단과의 친밀성에 부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즉, 집단적으로 과도하게 정체성이 강화되었을 때,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는 자민족중심주의로 발전하여 다문화 수용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Hjerm & Nagayoshi(2011)은 소수집단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거나 이들의 공동체를 보장하는 다문화주의가 오히려 종족위계(ethnic hierarchy)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소수집단의 권리를 수용하는데 부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5] 이자형·김경근(2012)은 민족정체성이 강한 사람들이 다문화주의를 수용하더라도 종족위계가 높은 다수집단의 민족동질성을 저해하지 않지만,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소수집단과 다수집단에게 평등한 관리를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개연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는 다문화 정책이 동화주의를 지향하는지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더라도 어떤 다문화주의 그리고 강한 자민족중심주의의 영향이 사회에는 상이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소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해 진정하게 고민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초창기 정치와 정책은 이주민에 대한 국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이민과 관련해 정부가 이민 및 난민 수용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대중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양성과 차별성도 함께 강화됨으로써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국민들이 하여금 자신

5) 구견서(2003)은 다문화주의가 선진국의 강한 인종이 개발도상국의 약한 인종에 대한 우월성을 공식화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지적한 바가 있다.

은 어디에 속해있고, 어떠한 가치관과 어디까지 누구를 같은 구성원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옥한석·이명민, 2002; 서태열, 2004; 재인용).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사태'를 예를 들면, 수용을 둘러싼 갈등은 외국인 및 다문화 수용의 조건과 임계치가 존재함을 드러냈으며,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국가나 사회 전반에 하나의 인식이 한번 자리 잡게 되면 상당 기간 국민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에 낮은 민족정체성은 낮은 소속감과 공동체 유지에 대한 책임감 부족을 유발한다면, 높은 민족정체성의 지나친 강조는 폐쇄성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물론, 정치 지도자들이 표방하는 이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대중의 이민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했다. 언론이 미치는 영향도 있다. 비록 언론보도와 이민과 이주민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언론보도는 대중이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즉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에 공동체 내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기도 악화시키기도 한다.

4. 다문화 수용성과 세계화에 대한 의식

17세기 이후 최근까지 국민국가는 세계 정치 경제의 가장 중심적인 행위자였다.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경제행위, 문화적 교류의 대부분은 개별 국가 내에서 이루어졌고,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활동은 물리적 장애, 정치적 장애, 문화적 장애로 인해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교통·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국제무역과 투자의 확대, 문화개방화의 진전으로 세계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추세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국경을 초월하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구촌으

로 통합되면서, 사람과 재화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사회 공동의 규범이 추진되었으며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의 활동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특히 이 세계화로 향한 변화가 부각이 되고 있다.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국가와 기업 간의 무한 경쟁과 아울러 상호 협력이 증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가 개별 국가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먼저, 경제적 차원에서 상호의존과 통합성을 증진하는 세계화 과정이 궁극적으로 의식을 전환 시킴으로써 문화적 차원의 통합과 동질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지금의 우리 경제를 보면 자유 경쟁의 확대로 인한 국가와 기업 간의 경쟁력 향상, 자유무역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 상품 시장의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익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과 밀접하게 접목되면서 지구상 어느 나라와 어느 세력, 어느 국민도 전화, 팩스, 위성통신, 위성방송, 인터넷을 벗어나지 못하고 '시간과 공간의 압축(time-space compression)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Harbey, 1989; Cairncrss, 1997) 그 결과 개별 국가와 사회들을 분절시켰던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 장애물이 제거되면서 전 지구가 하나의 경제·교류·생활 단위로 통합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세계화를 촉진했던 다른 요인으로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확대에 발맞춘 정치적·사회적 상호의존의 증가이다. 세상에 EU, APEC, NAFTA 등의 지역협력체가 등장하고 WTO와 같은 국제체제가 결성된 것은 모두 경제적 영역에서 진행되는 세계화에 대응하여 개별 국가들이 '주권의 결합'을 통해 정치적 통합성을 증진시켜온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인권과 환경 등 세계적 차원의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 수많은 비정부기구가 등장하였고, 각국의 시민사회도 통합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질서와 투명한 초국적 자본의 활동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인권남용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개입에 대한 국제사화의 합의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또한 점차 각 방면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파괴 문제에 대해 인간의 삶과 환경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자각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이 사람의 생명과 삶의 터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화는 문화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측면이 부각된다. 인터넷망을 통해 세계 각지 뉴스와 정보가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됨으로써 자신이 사는 위치에 제한됨 없이 세계를 폭넓게 인지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한 각종 문화상품을 소비하고 세계화된 기호를 형상하게 된다(박길성, 1996). 이러한 활동은 특정한 공간을 초월하여 지구촌 전체에 대한 '세계의식(global consciousness)'이나 '세계적 귀속의식(sense of global belonging)'이 발전한다(roberson, 1992; Harvey, 1989; Waters, 1995). 다시 말해 인간의 의식이 특정 국가의 영토 경계와 민족의 경계를 벗어나 세계적 수준으로 확대되어 '의식의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가 일어난다는 것이다(Held, 1995). 이는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각 국가 간의 문화 차이가 점차 줄어들며 사회 구성원의 통합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McLuhan(1964), Harvey(1989), Robertson(1992), Giddens(1990) 등의 주장에 따라 이러한 흐름을 세계화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 차원의 상호의존과 통합에 부응하여 정치와 사회적 차원, 더욱 나아가 문화적 차원까지 전 지구적으로 다방면적 수용이 확산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세계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어 비교우위 상품의 특화에 따른 국내 산업기반 잠식, 계층 간 소득의 격차로 인한 양극화 심화, 두뇌 유출, 글로벌 문화와 국지적 문화의 상호충돌, 국가와 민족집단에 대한 강한 일체감과 정체성 영향력 발휘, 사회적 유대와 소속감을 부여해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문화공동체(cultural commune)를 강렬하게 찾는 현상 등을 들 수 있다(Castells, 1997).

우선,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가 국가 간에 이동은 세계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요소부존도나 기술력의 차이로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가 국가 간에 차이가 나고, 이러한 이동 혹은 이민은 송출국과 이민을 받아들이는 국가 모두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결과를 맞이한다. 한국의 경우, 국가 경제 발전과 1980년대 말부터 동남아시아, 중국 등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투자 본격화와 동시에 저숙련

외국 인력의 수입 문제가 쟁점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특정 일자리 기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저숙련 외국 인력의 도입에 있어서 이주 노동자들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닌 오히려 보완관계로 인해 내국인의 일자리 또한 보호하는 측면을 말한다. 반면, 설문조사의 결과에 거론되는 저숙련 이주민의 부정적 인식 이유 중 하나로 이주자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의 절약이 도리어 내국인들이 저숙련 이주자가 일하는 일자리 기피, 임금 대폭 인상 요구 등이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와중에 민족주의나 문화적 집합주의가 분출한다. Druker(1993)는 세계화로 인해 삶의 위험 및 불안전과 같은 요소 외에 정체성의 상실, 이질성의 심화 등과 같은 정신적 혼란이 발행하고, 이것이 언어와 종교 등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는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에 대한 귀속의식과 연대의식을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볼 때 문화적 집합주의는 특정 문화공동체에 대한 동일시감과 소속감이 진행되는 세계화와 정보화에 대항하고 자신을 방어하려는 다양한 민족집단과 종교집단의 문화적 반작용으로서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Castells, 1997). 이는 세계화로 인해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의 상호의존성과 통합성을 증진시키고 있으나 문화적 측면에서는 세계주의와 문화적 측면의 국지주의가 병존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양립하면서도 상호충돌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률(2001)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자본과 상품의 이동은 물론 사람의 이동이 폭넓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여전히 순수혈통을 중시하고, 이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즉, (1)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 (2) (1)의 혼인으로 출생한 자녀, (3)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습득하고 소속감을 가지는 경우에, 이들을 모두 한민족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들에 대해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를 가니다고 말한다. 이는 속지주의의 전통에 따른 국가와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제기한 주장을 정리하면,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며, 세

계화의 진전에 따라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방면에서 상호의존성과 통합성이 증가한다는 측면과 개별 국가와 민족주의의 부활을 가져온다는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 세계화 시대가 부과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제, 증가하는 상호의존과 심화하는 무한 경쟁 속에서 국가·민족 간의 평화적 공존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세계의 통합에 따른 각 문화의 수용은 어떤 노선으로 가야 하는지 많은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다문화 수용성과 현실갈등이론

현실갈등이론(Realistic Conflict Theory)은 “Robbers Cave”를 연구했던 미국인 심리학자 Muzafer Sherif에 의해 집단갈등으로 발전된 이론이다. 집단 간의 갈등이 비이상적인 것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자원의 실제적인 필요성에 기반을 두며(it isn’t something irrational but on actual need for resources), 집단들이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 이론이다. 이 이론은 집단과의 현실적인 갈등이 경쟁 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협의식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이는 경제적인 위협과 같은 실질적인 위협뿐 아니라 상징적 위협, 부정적 편견, 집단 간 불안과 같은 요인들이 개인이 하여금 특정 집단을 위협으로 인식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진다(Esses, Jackson and Armstrong, 1998; Gang, Rivera-Batiz and Yun, 2002, Hainmuller and Hiscox, 2007).

집단의 유입이 초래한 (또는 초래한 것으로 믿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변화나 이방인과 토착인 사이의 갈등 관계를 야기하고 나아가 지역사회가 구성원의 일탈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약화될 때, 범죄나 무질서가 증가하고 지역사회의 불안감 상승한다. 예를 들어, 이주민에 의하여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가 대중매체를 타고 전파되면서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는 조선족 혐오라는 신조어인 차오포비아(Chao-Phobia)가 등장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2017년 10월 27일 한경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대림역 인근에 형성된 조선족 밀집 지역은 영화에서 '범죄의 온상'으로 그려지며, 2015년 만 20~35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조선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비율이 94%에 달하였다. 이는 실제와 통계적으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회 파장이 큰 외국인 범죄나 뉴스 및 신문 보도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될 때,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

현실갈등인식은 제한된 자원에서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불관용적 태도와 차별, 편견의 수준을 결정하며(백승대·안태준, 2013), 이주민을 정책적으로 포섭할지 배제할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원숙연, 2008).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학력, 소득, 취업여부, 직종 등 여러 가능한 변수들이 원인변수로서 다문화 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주기도 하며, 정(+)의 영향을 주기도 한다(이자형·김경근, 2012; 정하나, 2016).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의 일부분(<표 1-1>)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에 위협적인 요소이거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2.9%, 33.9%였던 반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도 31%, 26.1%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과도 연결이 되는데 중졸 이하의 학력인 경우, 50% 이상이 위협적으로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대졸 이상인 경우 30% 이하가 위협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 수준별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방면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 중 하나인 교육 수준은 다문화 수용성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내국인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아 다문화 수용성이 높았으며, 특히 대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소수집단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거나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고 말한다(윤인진·송영호, 2011; 전영자 외, 2010; 황정미 외, 2007; Becchetti, Rossetti and Castriota, 2010; Berg, 2009; Hello, Scheepers and Gijsberts, 2002; Ward and

Masgoret, 2008). 역으로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더 높은 수준의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다문화 정책의 시행에도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Berg(2009)의 연구에서는 백인을 대상으로 교육 수준에 따른 정책의 수용 확률을 연구를 수행한 결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주민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에 우호적 또는 동의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Becchetti, Rossetti, and Castriota(2010) 또한 높은 교육 수준은 이주민에 대하여 관용적인 태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임을 밝혀낸 바가 있다. Hello, Scheepers, and Gijsberts(2002)는 교육제도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관대하지 못한 마음을 완화시키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전수하는 중요한 사회화 기관이라는 관점에서 교육 수준의 효과를 바라본 바도 있다. 반면, 교육의 효과가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이 지적되었다(김석호 외, 2011). 그러나 여전히 전반적인 경향성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민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1> 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인식 조사

인식 정도별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1) 일자리 위협					
전혀 그렇지 않다	2.7%	1.3%	2.3%	1.6%	4.1%
별로 그렇지 않다	28.3%	15.2%	26.2%	28.8%	34.9%
보통이다	36.1%	26.7%	36.6%	41.9%	35.3%
대체로 그렇다	29.1%	48.7%	31.0%	24.5%	22.0%
매우 그렇다	3.8%	8.0%	3.8%	3.2%	2.9%
사례 수(명)	4,000	441	1,546	698	1,312
(2) 경제적 손실					
전혀 그렇지 않다	2.3%	0.7%	2.6%	1.9%	2.6%
별로 그렇지 않다	23.8%	14.4%	22.5%	20.7%	30.3%
보통이다	40.1%	38.6%	36.2%	46.1%	41.9%
대체로 그렇다	28.9%	36.2%	34.2%	25.8%	21.6%

매우 그렇다	5.0%	10.1%	4.5%	5.4%	3.7%
사례 수(명)	4,000	441	1,546	698	1,312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제한된 자원인 고용기회와 경제적 이익을 두고 이주민과 내국인 간 경쟁 구도가 발생한다. Scheve and Slaughter(2001)은 저숙련 직업일수록 이주민 정책에 더 엄격한 접근을 바란다는 결과를 통해 개인의 직업 지위가 이주민을 배려하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물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직업 지위가 낮은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복지 수급에 있어 이주민들과 경쟁 관계가 놓여있다고 인식할 수 있으며, 이들을 국가 경제에 위협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Facchini and Mayda, 2009).

Vedlitz and Zahran(2007)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현실주의적 집단 갈등이론(realistic group conflict theory)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숙련 노동자일 경우에 일자리와 같은 희소한 자원의 분배를 두고 이주민과 긴장 관계에 놓이면서 소수집단 정책에 비우호적이며 경쟁의 상대로 받아들이면서 다문화 수용성도 낮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각 지역의 단순노동, 건설업, 음식·숙박업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대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활동 영역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가치조사(2016) 중 '이주노동자는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라는 설문에 대해 '그렇다'와 '아니다'의 응답자 수가 비슷하게 나온 결과, 경제적 위협이 다문화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서구에서는 인구 사회학적 요인인 학력, 성별, 종교, 직업 종류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종교가 있는 사람들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낮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Citrin, Johnston, & Wright 2012; Ueffing, Rowe, & Mulder 2015).

정리하면, 교육 수준은 사회적 관용, 공동체 의식, 세계시민 의식을,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반

면, 소득과 직업 지위와 같은 경제적 요인은 현실 위협의식을 통해 자신의 현 상황에 따라 정(+) 또는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 가설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독립변수 문항에 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본래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자민족중심주의, 보수적 문화 인식, 세계화에 대한 인식 등 세 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보수적 문화 인식의 문항은 “아내는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등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은 “전적으로 반대” “상당히 반대”, “약간 반대”, “찬성도 반대도 아님”, “약간 찬성”, “상당히 찬성”, “전적으로 찬성”으로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숫자가 커질수록 찬성을 의미한다. 요인 분석결과 2개의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문항의 신뢰도는 .74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족중심주의, 보수적 문화 인식, 세계화에 대한 인식을 3가지 원인변수로 각각 다문화 수용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보수적 문화 인식의 유의확률이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으며, 매우 낮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3개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바, 이번 연구에서는 상위 두 개의 독립변수인 자민족중심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인식 등 총 2개의 독립변수로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보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 6 장 연구의 한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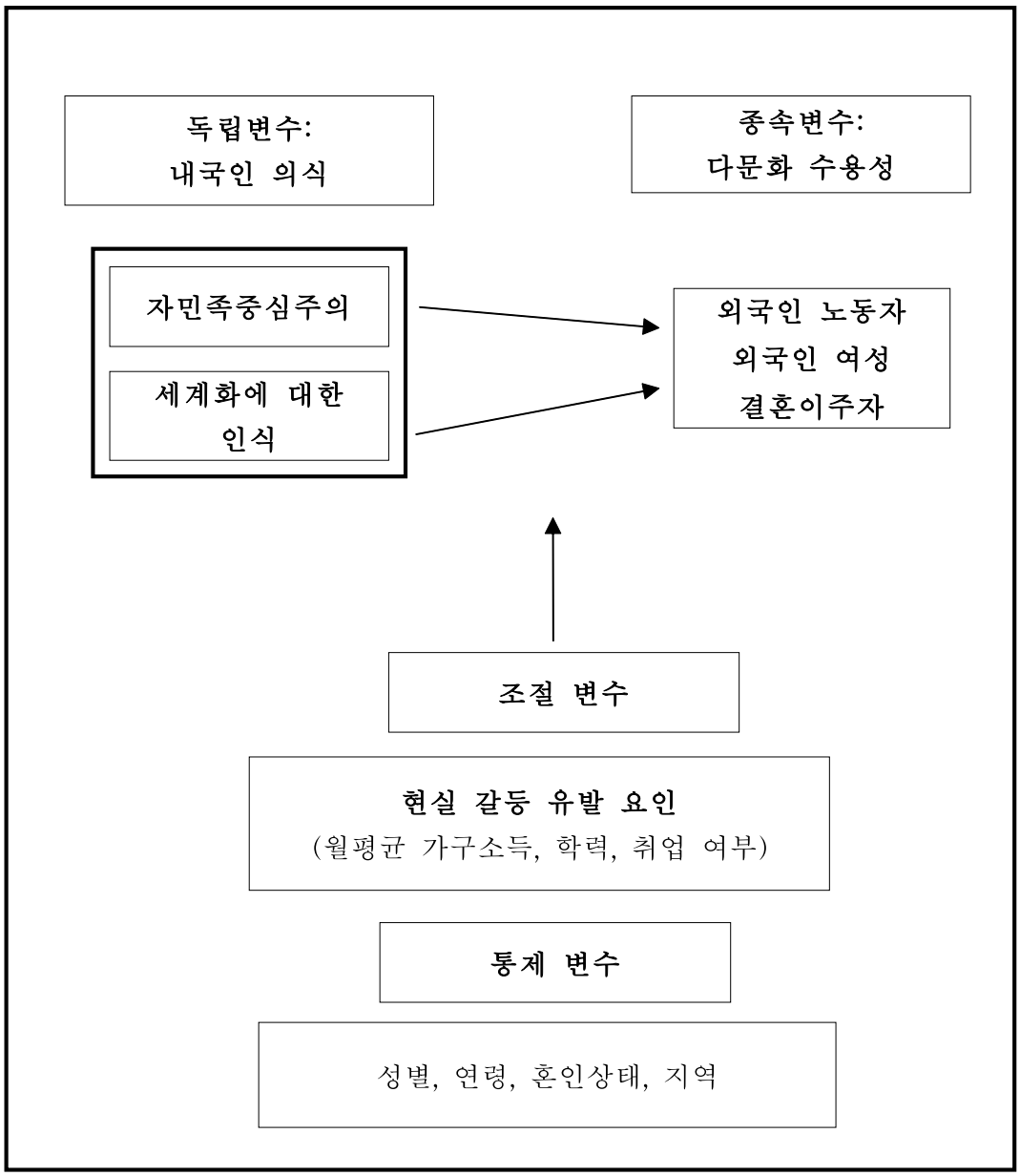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내국인 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

여 현실 갈등 유발 요인의 조절 효과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토대로 통제변수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혼인 상태, 지역 등이 있다. 이상의 분석을 위한 모형을 도형화 시키면 아래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2. 연구가설

우선 본 연구는 내국인 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내국인 의식을 자민족중심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다문화 수용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앞서 김혜숙 외(2011), 김경근 외(2015), 양계민·이우영(2016)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민족중심주의는 다문화 수용성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세계화에 대한 인식은 유상우·김상돈(2010)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다문화 수용 태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 가설 1: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자민족중심주의가 다문화 수영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현실 갈등(Realistic Conflict)은 집단 간 갈등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이다. 양계민(2015)은 한정된 자원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모두 자원을 소유할 수 없기에 한 집단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을 점유하게 되는 상황에서 경쟁심과 적개심이 생겨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평가가 동반되며 이 평가가 집단 내에 공유되고 부풀려지고 자연스럽게 편견으로 자리 잡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송, 권주안(1997)은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정부 재정이 부담이 높아진 주에 거주하는 고소득자들이 이주민을 덜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것을 경험적 분석하였다. 이는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고소득자들이 이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주관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나타낸다. 이명진 외(2010)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아 다문화 수용성이 높았다는 결과를 보여줬다. 이를 바탕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취

업 여부, 학력이 내국인 의식과 다문화 수용성 간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 가설 3: 학력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3-1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라 학력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3-2 자민족중심주의와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가 학력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 가설 4: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4-1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가 월평균 가구소득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4-2 자민족중심주의와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가 월평균 가구소득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 가설 5: 월평균 소득이 자민족중심주의와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5-1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가 취업 여부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가설 5-2 자민족중심주의와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가 취업 여뷰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표 2> 가설정리

가설	내용 결과
가설 1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자민족중심주의가 다문화 수영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학력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3-1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라 학력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3-2	자민족중심주의와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가 학력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4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4-1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가 월평균 가구소득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4-2	자민족중심주의와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가 월평균 가구소득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5	취업 여부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가 유의미할 것이다.
가설 5-1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가 취업 여부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가설 5-2	자민족중심주의와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가 취업 여부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이주민 및 외국인 노동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내국인 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현실갈등 요인으로 차등적으로 나타난다면 이에 따른 정책대안을 수립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1.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내국인 의식이다. 이를 자민족중심주의과 세계화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자민족중심주의와 보수적 문화 인식 관련 설문 문항을 각 두 가지 문항과 세 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자민족중심주의는 “한국은 국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 “다른 나라와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한국은 국가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외국의 영화, 음악, 책 등에 많이 노출되면 한국 문화는 손상된다” 등 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문항은 “매우 동의”, “동의”, “다소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다소 반대” “반대”, “매우 반대”로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세계화에 대한 인식은 “국가/지역 간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 귀하는 이 같은 추세가 한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가”의 설문으로 각 한국 경제, 노동자들의 일자리,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물어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문항은“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영향”, “다소 부정적인 영향”,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 “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등으로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자민족중심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인식은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하는 개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다문화 수용성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설문 문항을 총 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 수용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 내 적정 외국인 노동자 규모와 외국인 여성 결혼이주자 규모를 살펴보려고 한다.

설문 문항은 “귀하는 한국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증가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감소하시길 바랍니까”의 설문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증가하기를 바람”, “다소 증가하기를 바람”, “변화 없기를 바람”, “다소 감소하기를 바람”, “매우 감소하기를 바람”이며, 외국인 여성 결혼이주자에 대한 응답은 외국인 노동자의 응답 문항과 같으며, 이는 리커트 5점 척도 응답하게 되어 이루어져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 태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조절변수

본 연구의 조절변수는 현실 갈등 유발 요인이다. 현실 갈등(Realistic Conflict)은 집단 간 갈등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에 따라 이강모·하규수(2015)의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설문지 중 적합한 문항을 선택하여 총 세 문항으로 확정하였고, 각 문항은 월평균 총소득, 취업 여부 및 학력이다.

먼저, 월평균 가구소득은 “귀댁의 월평균 총소득은 세금 공제 이전에 대략 얼마나 됩니까?” 하는 문항을 활용했으며, 기존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설문 문항은 24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정재도 외(2019)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과정을 거쳐 “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700만 원 미만”, “700만 원 이상”으로 총 7개 문항으로 확정하였다.

취업 여부 변수의 설문 문항은 “지금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

까? 설문에 “취업”과 “미취업” 구성되어 있다.

학력 변수 설문 문항 및 응답자 수는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의 설문에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4년제 졸업” “석사”, “박사”로 구분하였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기존 이론 및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제 변수들이다. 윤인진·송영호(2011), 정혜원(2020), 양계민(2010)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인적 요소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설문 문항을 통해 성별, 연령, 지역, 혼인 여부를 통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통제변수를 이루고 있는 변수 중 성별은 “남성”과 “여성”, 연령은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거주지역은 “수도권”, “비수도권”, 혼인상태는 “기혼”과 “미혼”의 인적 요소를 통제하여 내국인 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갈등유발 요인에 따라 조절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표 3> 측정문항의 구성

변수		문항 내용
독립 변수	세계화에 대한 인식	국가/지역 간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 귀하는 이 같은 추세가 한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한국 경제
		2. 노동자 일자리
		3. 자연환경
	자민족중심주의	1. 한국은 국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
		2. 다른 나라와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한국은 국가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3. 외국의 영화, 음악, 책 등에 많이 노출되면 한국 문화는 손상된다.
종속 변수	다문화 수용 태도	귀하는 한국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증가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감소하시길 바랍니까?
		1. 외국인 노동자
		2. 외국인 여성 결혼이주자
조절변수	월평균 가구소득	귀댁의 월평균 총소득은 세금 공제 이전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취업 여부	지금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학력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통제변수	성별	남성
		여성
	연령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거주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혼인 상태	기혼
		미혼

제 3 절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018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한국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기초 통계 원자료(raw data)의 생산 및 확산을 위해 시행되는 연차적 대단위 전국표본조사(national sample survey) 사업으로서, 미국 시카고대학교 NORC(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의 GSS(General Social Survey)를 기본 모형으로 설계되었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성균관대학

교 서베이리서치센터(Survey Research Center)는 공익적 서비스를 최대화하기 위해 Zentralarchive fuer Empirische Sozialforschung, University of Cologne,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Korean Social Science Data Archive), EASSDA(EASS Data Archive) 등에 원자료를 아카이빙함과 동시에 자료 이용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통계자료집을 출간하고 있다.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설문지는 매년 반복 조사하는 핵심설문(replicating core questions),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 48개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연차적 주제모듈(ISSP annual topical modules),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4개국이 격년 주기로 공동 조사하는 주제모듈(EASS biennial topical modules), 그리고 특별연구를 위한 주제 모듈(special topical modules) 등을 당해년도의 요구와 필요를 감안해서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로 구성되고, 표본은 전국의 가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해서 다단계지역확률표집(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 방법에 의해 추출되며, 현지조사는 면접원이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심층 면접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다문화 수용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내고 그 영향 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검정하기 위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이 연구의 핵심이다.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전국의 만 18세~88세의 성인 대상이며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의 일반적 경향성과 자료의 정규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주요 변수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자민족중심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인식,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월평균 소득, 학력, 취업 여부가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4 장 종합적 논의

제 1 절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분석

1. 측정도구의 구성: 종속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 통제변수

1)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다문화 수용성은 한국 내 적정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 규모와 외국인 여성 결혼이주자 규모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려고 한다. 변수는 “귀하는 한국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증가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감소하시길 바랍니까”의 설문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증가하기를 바람”, “다소 증가하기를 바람”, “변화 없기를 바람”, “다소 감소하기를 바람”, “매우 감소하기를 바람”이며, 외국인 여성 결혼이주자에 대한 응답은 외국인 노동자의 응답 문항과 같으며, 이는 리커트 5점 척도 응답하게 되어 이루어져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 태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총 2,479명에 대하여 조사된 다문화 수용성의 평균은 2.66, 표준편차는 .87이며, 왜도는 .21, 그리고 첨도는 -.24이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로 내국인 의식으로 자민족중심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척도는 자민족중심주의는 “한국은 국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 "다른 나라와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한국은 국가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외국의 영화, 음악, 책 등에 많이 노출되면 한국 문화는 손상된다" 등 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문항은 "매우 반대", "반대", "다소 반대", "동의도 반대도 아님", "다소 동의", "동의", "매우 동의"로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세계화에 대한 인식은 "국가/지역간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 귀하는 이 같은 추세가 한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가"의 설문으로 각 한국 경제, 노동자들의 일자리,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물어보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해당 문항은 "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영향", "다소 부정적인 영향",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 "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등으로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총 2,479명에 대하여 조사된 자민족중심주의의 평균은 4.21, 표준편차는 1.07 이며, 왜도는 1.9, 그리고 첨도는 .24이다. 세계화에 대한 인식 평균은 4.24, 표준편차는. 92, 왜도는 .03, 첨도는 .062이다.

<표 4>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세계화에 대한 인식	4.24	.92	.03	.62
자민족중심주의	4.21	1.07	.19	.24
다문화 수용성	2.66	.87	.21	-.24

(*N*=2,479)

3) 조절변수

본 연구의 조절변수는 현실갈등유발 요인이다. 현실갈등유발 요인은

범주형 변수이며 학력, 취업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분류한다.

학력은 무학 98명(3.9%), 초등학교 졸업 284명(11.5%), 중학교 졸업 199명(8.0%), 고등학교 졸업 716명(28.9%), 전문대 졸업 263명(10.6%), 4년제 졸업 777명(31.3%), 석사 112명(4.5%), 박사 30명(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부는 취업 1,425명(57.5%), 미취업 1,054명(4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 796명(32.1%), 200~300만원 미만 360명(14.5%), 300~400만원 미만 378명(15.2%), 400~500만원 미만 287명(11.6%), 500~600만원 미만 233명(9.4%), 600~700만원 미만 109명(4.4%), 700만원 이상 316명(12.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현실 갈등 유발 요인에 관한 기초통계량

구분		*n*	%
학력	무학	98	3.9
	초등학교 졸업	284	11.5
	중학교 졸업	199	8.0
	고등학교 졸업	716	28.9
	전문대 졸업	263	10.6
	4년제 졸업	777	31.3
	석사	112	4.5
	박사	30	1.2
취업 여부	취업	1,425	57.5
	미취업	1,054	42.5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796	32.1
	200~300만원 미만	360	14.5
	300~400만원 미만	378	15.2
	400~500만원 미만	287	11.6
	500~600만원 미만	233	9.4
	600~700만원 미만	109	4.4
	700만원 이상	316	12.7

4) 통제변수

내국인 인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현실갈등유발 요인이 갖는 조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내국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및 변수가 갖는 통계량을 이하에 정리하였다.

<표 6> 통제변수 통계량

구분		*n*	%
성별	남성	1,134	45.7
	여성	1,345	54.3
연령	20대 이하	458	18.5
	30대	492	19.8
	40대	513	20.7
	50대	374	15.1
	60대	289	11.7
	70대 이상	353	14.2
거주지역	수도권	1,072	43.2
	비수도권	1,407	56.8
혼인 여부	수도권	1,072	43.2
	비수도권	1,407	56.8

2.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자료의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요인의 해석을 단순화하는 배리맥스(varimax) 회전 방식을 적용하였다. 요인은 고유값(Eigen value) 1.0을 기준으로 추출하였으며,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4이상이면 해당하는 요인에 속하는 문항으로 판단하였다(Ford, MacCallum & Tait, 1986). 또한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는 .5이상이면 허용할만한 신뢰도인 것으로 해석하였다(Nunnally, 1967).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KMO 측도값은 .692로 최소 기준치인 .6보다 크고, 측정문항들의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인지의 여부를 검정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량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수집된 자료와 측정항목이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고유값이 1.0 이상으로 추출된 요인은 3개로 나타났으며 각각 세계화에 대한 인식 3 문항, 자민족 중심주의 3 문항, 다문화 수용성 2 문항으로 분류되었다.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4 이상이고,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는 세계화에 대한 인식 .65, 자민족 중심주의 .56, 다문화 수용성 .73으로 나타나 각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하 <표 7>에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정리하였다.

<표 7>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요인	측정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값	설명 분산 (%)	Cronbach's α
세계화에 대한 인식	세계화에 대한 인식2	.842	1.79	22.32	.65
	세계화에 대한 인식1	.761			
	세계화에 대한 인식3	.678			
자민족 중심주의	자민족중심주의1	.780	1.64	20.55	.56
	자민족중심주의3	.753			
	자민족중심주의2	.624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2	.894	1.57	19.68	.73
	다문화 수용성1	.868			

합계	62.54
KMO 측도	.69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28)=2914.65(.000)$

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및 조절변수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세계화에 대한 인식은 다문화 수용성(r=.15, p<.01)와 정적상관이 있고, 자민족중심주의는 다문화 수용성(r=-.11, p<.01)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계화 인식과 자민족 중심주의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주요 변수 간 상관분석

	성별	연령	거주지역	혼인 상태	세계화에 대한 인식	자민족 중심주의
성별	1					
연령	-.080***	1				
거주지역	.03	-.12***	1			
혼인 상태	.14***	-.49***	.03	1		
세계화에 대한 인식	.06***	.02	.02	-.05**	1	
자민족중심주의	-.06***	.19***	-.07***	-.14***	-.07	1
다문화 수용성	.05***	-.01	-.01	.01	.15***	-.11***

*p<.10, **p<.05, ***p<.01

(N=2,479)

제 2 절 분석결과

본 절에서는 앞서 서술한 최종 모형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조절 효과를 분석 및 가설을 실질적으로 검증하였다.

1. 조절효과 분석 및 가설 검증

1)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학력의 조절효과

세계화에 대한 인식, 자민족중심주의와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학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독립변수는 표준화하였다. 분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통제변수를 투입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투입하였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조절변수를 투입하였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분산팽창계수(VIF)는 1.02~2.60으로 나타나 10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Durbin-Watson 계수는 2.02로 나타나 2에 가까우므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성별(β=.05, p<.01)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연령, 거주지역, 혼인상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인식(β=.13, p<.01), 자민족중심

주의 (β=-.10, p<.01)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자민족중심주의가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1, 자민족중심주의가 다문화 수용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2가 채택됨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학력(β=.05, p<.010)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력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3이 채택됨을 알 수 있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학력의 상호작용항, 자민족중심주의와 학력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은 세계화에 대한 인식, 자민족중심주의와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력이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6, 자민족중심주의와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7이 기각됨을 알 수 있었다.

<표 9>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학력의 조절효과

Step	Variable	B	SE	β	t	F	R^2
1	성별(ref:여성)	.08	.04	.05	2.33**	2.14*	.004
	연령	.00	.00	.03	1.07		
	거주지역 (ref:비수도권)	-.02	.04	-.01	-.54		
	혼인상태_기혼	-.04	.05	-.02	-.80		

	(ref:미혼)						
	혼인상태_기타 (ref:미혼)	-.12	.08	-.05	-1.61		
2	세계화에 대한 인식	.12	.02	.14	6.75***	13.01***	.037
	자민족중심주의	-.09	.02	-.11	-5.34***		
3	학력 (ref:고졸 이하)	.04	.02	.05	1.88*	11.84	.037
4	세계화에 대한 인식x학력	.01	.04	.01	.26	9.47***	.037
	자민족중심주의x학력	.01	.04	.01	.18		

*p<.10, **p<.05, ***p<.01

2)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월평균 가구소득의 조절효과

세계화에 대한 인식, 자민족중심주의와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월평균 가구소득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독립변수는 표준화하였다.

분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통제변수를 투입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투입하였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분산팽창계수(VIF)는 1.02~2.60로 나타나 10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Durbin-Watson 계수는 2.04로 나타나 2에 가까우므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유의미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인식(β=.12, p<.01), 자민족중심주의(β=-.11, p<.01)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높고 자민족중심주의가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4가 채택됨을 알 수 있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월평균 가구소득의 상호작용항(β=.08, p<.05), 자민족중심주의와 월평균 가구소득의 상호작용항(β=.06, p<.10)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은 세계화에 대한 인식, 자민족중심주의와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월평균 가구소득이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8, 월평균 가구소득이 자민족중심주의와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9가 채택됨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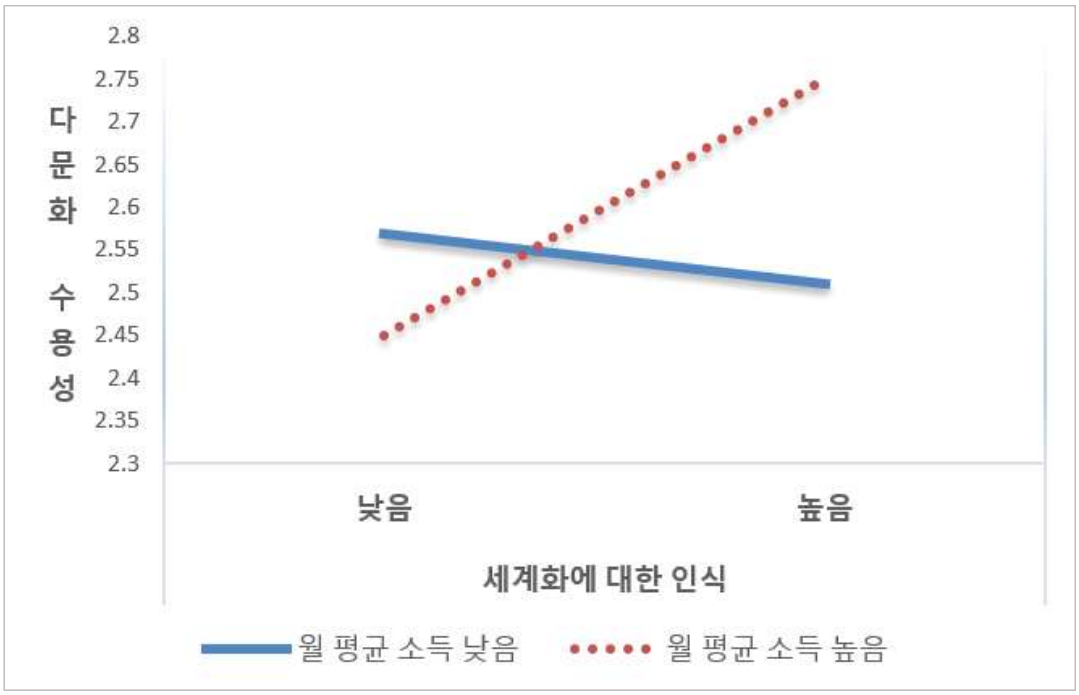
<표 10>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월평균 가구소득의 조절효과

Step	Variable	B	SE	β	t	F	R^2
1	성별(ref:여성)	.07	.04	.04	1.82	1.68	.004
	연령	.00	.00	.04	1.32		
	거주지역 (ref:비수도권)	-.01	.04	-.01	-.31		
	혼인상태_기혼 (ref:미혼)	-.05	.05	-.03	-.84		
	혼인상태_기타	-.13	.08	-.06	-1.67*		

	(ref:미혼)						
2	세계화에 대한 인식	.11	.02	.12	5.96***	10.98***	.032
	자민족중심주의	-.10	.02	-.11	-5.22***		
3	월 평균 가구소득	.04	.02	.04	1.89*	10.07***	.034
4	세계화에 대한 인식x소득	.09	.04	.08	2.56**	9.01***	.038
	자민족중심주의x소득	.07	.04	.06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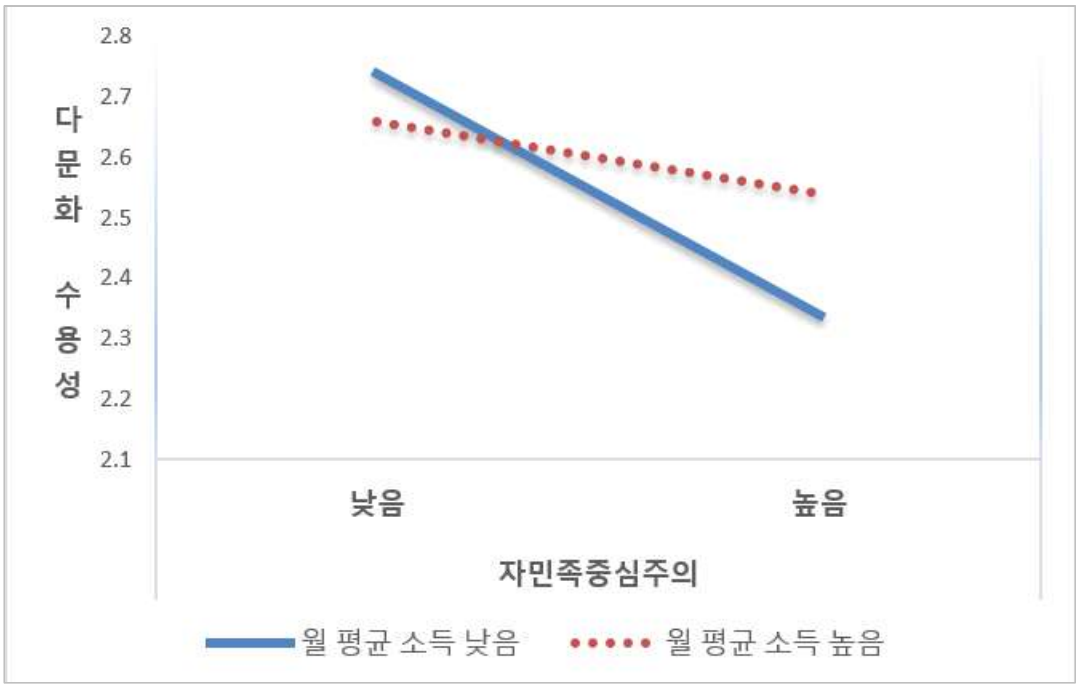
*p<.10, **p<.05, ***p<.01

월평균 가구소득이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조절함에 따라 조절 효과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변수인 소득이 낮은 지점과 높은 지점에서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 2>에 도식화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으면,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이 높으면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 월 평균 가구소득의 조절효과 양상1 (세계화에 대한 인식)

월평균 가구소득이 자민족중심주의와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조절함에 따라 조절 효과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변수인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은 지점과 높은 지점에서 자민족중심주의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 3>에 도식화하였다. 소득이 낮으면,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이 높으면 자민족중심주의가 높더라도 다문화 수용성이 낮아지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 월평균 가구소득의 조절효과 양상2 (자민족중심주의)

3)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취업 여부의 조절 효과

세계화에 대한 인식, 자민족중심주의와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취업 여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독립변수는 표준화하였다. 분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통제변수를 투입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투입하였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분산팽창계수(VIF)는 1.02~2.70로 나타나 10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Durbin-Watson 계수는 2.02로 나타나 2에 가까우므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성별(β=.05, p<.05)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연령, 거주지역, 혼인상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인식(β=.14, p<.01), 자민족중심주의(β=-.11, p<.01)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높고 자민족중심주의가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취업 여부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 여부에 따른 다문화에 대한 수용 태도의 차이가 유의미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5가 기각됨을 알 수 있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취업 여부의 상호작용항, 자민족 중심주의와 취업 여부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 여부는 세계화에 대한 인식, 자민족중심주의와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취업 여부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이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가설 5,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10, 취업 여부가 자민족중심주의와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11이 기각된다는 결과에 따라 취업 여부는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취업 여부의 조절효과

Step	Variable	B	SE	β	t	F	R^2
1	성별(ref:여성)	.08	.04	.05	2.33**	2.14*	.004
	연령	.00	.00	.03	1.07		
	거주지역(ref:비수도권)	-.02	.04	-.01	-.54		
	혼인상태_기혼 (ref:미혼)	-.04	.05	-.02	-.80		
	혼인상태_기타 (ref:미혼)	-.12	.08	-.05	-1.61		
2	세계화에 대한 인식	.12	.02	.14	6.75***	13.01***	.036
	자민족중심주의	-.09	.02	-.11	-5.34***		
3	취업 여부(ref:미취업)	.01	.04	.01	.24	11.39***	.036
4	세계화에 대한 인식 x취업 여부	-.00	.04	-.00	-.09	9.30***	.037
	자민족중심주의 x취업 여부	-.05	.04	-.04	-1.37		

*p<.10, **p<.05, ***p<.01

3. 가설 검증 요약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여 표 .에 제시하였다.

<표 12 > 가설 검증 결과 요약

가설	내용 결과	결과
가설 1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자민족중심주의가 다문화 수영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	학력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채택
가설 3-1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라 학력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기각
가설 3-2	자민족중심주의와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가 학력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기각
가설 4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채택
가설 4-1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가 월평균 가구소득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채택
가설 4-2	자민족중심주의와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가 월평균 가구소득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채택
가설 5	취업 여부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가 유의미할 것이다.	기각
가설 5-1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가 취업 여부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기각
가설 5-2	자민족중심주의와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가 취업 여부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기각

제 5 장 결 론

제 1 절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2018년 KGSS 자료를 근거로 경제적 상황, 법 및 제도, 국민의 전반적인 수용 태도 차원에 비추어 선행연구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서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한국 사회의 혈통에 근거한 자민족중심주의와 세계화에 따른 인식의 차이 특성이 다문화 수용성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소득, 학력, 취업 여부와 같은 변인들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조절 효과를 알아보려고 했다.

제6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해석에 근거하여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이 어떤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떠한 한계점이 있는지 말하고자 한다.

첫째, 내국인 인식이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외국인 노동자 및 외국인 결혼 이주 여성 규모)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에 있어 긍정적인 인식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민족중심주의가 강할수록,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에 있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은재(2021)가 주장하듯이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다른 문화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문화 사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자민족중심주의의 경우, 신광영·정철희(2002), 함한희(1995)의 연구와 같이 문화적으로 상당히 통합적이고 동질적인 면이 존재하는 한국 사회는 소수집단에 대해 정치적·문화적 관용 수준이 낮으며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 배제 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외국인 노동자 및 외국인 결혼 이주 여성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운데 조절변수인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수의 연구에서 밝혀낸 바와 같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다문화를 수용하는 의식도 높음을 보여준다.

반면, 학력은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자민족중심주의와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교육 수준은 낮고 높음의 차이가 같은 맥락에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나 단체에서 받은 다문화 교육, 활동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을 일시적으로 환기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수 있으나, 시간이 점차 지날수록 이주민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유지 내지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 기반이 되는 데에는 현재 교육이 한계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교육은 전반적인 인격을 형성하고, 사람 간의 관계를 형성하여 배움과 성장을 도모하고, 문제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도 성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 활동이 보급될 필요성이 보여진다.

셋째, 월평균 가구소득이 다문화 수용성과의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은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자민족중심주의와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으면,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이 높으면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소득이 낮으면,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이 높으면 자민족중심주의가 높더라도 다문화 수용성이 낮아지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다양성과 보편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구소득은 개인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소득 계층일수록 보수적인 시각이 이주민

과의 노동시장을 둘러싼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낮은 다문화 수용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당시 경기가 빠르게 후퇴 국면을 넘어 침체 국면으로 진입한 상황,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투자나 고용 같은 실물지표가 바닥을 치고, 그 해 경기가 작년의 하락 기조를 이어갔던 상황은 사람들 간의 불안과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노동시장에서 취업상태 및 소득은 자신이 사회의 계층구조 속에서 자신이 어느 계층에 속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면이 있어, 이주민의 출현은 새로운 경쟁 상대 구조라 여겨질 수 있다. 실질적으로도 그들이 일자리 경합을 증가시키거나 임금을 낮추는 위협요인으로 인식한다는 내국인들의 의견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있어서 모든 직종이 단순하게 이주민의 존재로 인해 사회로부터 도태되거나 대체되는 관계가 아닌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알려 일자리 경합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일자리 공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필요함이 보인다.

종합하면, 한국 사회에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국인의 인식인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은 학력, 소득에 따라 이주민 증가의 수용성에 부분적으로 인과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부는 다문화에 대한 수용 태도가 유의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취업과 미취업보다는 현재 자신의 경제적 요건에 의해 더 크게 조절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 태도가 여러 측면에서 내국인의 인식에 따라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추가로 앞서 언급했던 보수적 문화 인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적 문화 인식은 한국의 유교의식을 말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전통을 중요시하는 혈연중심적 가족주의, 개인적 권리보다는 집단적 덕목과 조화를 우선시하는 공동체주의와 가부장적 위계질서와 권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혼례, 상례, 장례는 유교적 전통에 근거하여 유지되어 있다. 이전과 지금은 생활양식의 변천에 따라 의례의 순서와 구성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는 유교주의적 가치의 커다란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족주의와 협동주의가 이

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문화의 전통성을 보호하고 혈통을 중요시하는 단일민족의 의식은 다문화 수용성에도 분명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이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던 시점과 설문에 응하였던 응답자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등 보수적 문화 인식 변수가 이번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무의미한 변수가 아닐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이상의 연구에도 다문화 수용성에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해에 따라 국민들의 다문화 수용 태도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 이외에도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변인들을 발견하고, 제시된 다문화 수용성 모델을 보다 정교화하는 이론적 작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다문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는 2018년 KGSS 자료를 근거로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의 실태와 특성들을 고찰하고, 영향을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 및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 제시하고자 한다.

1. 한국 사회 구성에 대한 신념과 인식의 변화

한국 사회 구성에 대한 신념과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단일민족사회의 한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분명해지고 있으나 다문화 사회로의 신념과 인식은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 사회 구성에 대한 신념적 전환기에 직면한 것이다.

2018년의 예멘 난민 사태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예멘의 내전으로 인한 예멘인 난민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제주도로 유입된 예멘인에 대한 난민 지원으로 인한 사회적 반발 등은 단일민족사회 구성에 대한 한계점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다문화를 수용하는 태도는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 귀속적 기준의 약화

세계 여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가족의 의미는 늘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문화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그리고 일상생활의 관점에서도 가족은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 질서 체계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가족주의적 경향이 유독 강하게 작동되는 면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전통적 가족주의의 강함은 주로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청소년, 아동을 약자로 만들고 남성 아버지 중심의 불합리한 질서로 작동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한국은 자민족중심주의에서 비롯된 나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등 귀속적인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강한 면이 존재한다. 자민족중심주의가 강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한국 사회 내에서 귀속적인 기준이 다문화 수용성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가족의 구성원이 더 다양한 의미와 기능적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현재와 미래에도 이러한 복잡성은 더 가중될 수 있는 상태에서 단일함과 고유한 형태의 강조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지속되기엔 어려움이 있다. 전반적인 가족 형태의 변화, 세대 간의 차이, 젠더 개념 전환, 이념의 차이는 인구학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빠른 세계화에 따른 개방성은 다문화 수용 태도에 변화를 일으켰다. 그 귀속적 요인도 강하지만 그러한 기준이 완화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적인 혈통 위주 귀속의식은 사회의 기본적 질서체계임과 동시에 정책적으로 제도 설계의 기본 단위가 될 수 있음에 사회

구성원에 대한 개념과 가치관을 확장하여 전망을 제시하고 변화 방향성을 정확히 진단하여 사회제도를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2) 경제적 여건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당해의 예멘 난민 사태의 사례와 본 연구의 연구 결과 등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적 요인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귀속적 요인과 함께 경기 침체, 불황, 취업난 등 경제적 여건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귀속적 요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경제적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다문화 수용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2. 다문화 교육, 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 방안

다문화 교육, 다문화 활동은 시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대표적 추진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일반 국민의 참여가 저조하며 다문화 교육·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낮은 편이다.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청소년들의 교육과정 전면 개정과 교육 혁신은 더욱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아울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에 기업의 참여도 필수이다. 미래사회로의 대전환기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은 공포이고, 공교육은 학생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현장 일부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을 피로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발전된 교육 기여에 주도적으로 함께할 필요가 있다.

1) 다문화 교육 및 다문화 활동 세부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 교육·다문화 활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접근과 시민의 관심, 참여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시민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국민 설문조사와 국민참여단의 숙위 과정을 통해 권고안을 도출하고,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 현장 교원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교육 및 활동 과정을 거칠 필요성이 있다.

먼저, 단일민족사회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는 만큼 다문화 수용성의 지속적인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합한 참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의 언어 배우기, 다른 나라의 음악·문화 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을 소득별, 학력별 집단에 따라 더욱 다양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 결과 중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성숙해짐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교육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다문화 교육 및 활동에 교육 수준별을 구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Shepherd and Regan(1981)은 이질집단 내에서 다양한 수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 모든 측면의 발달 및 성취에 기여할 수 있으며, Kegan(1995)는 학습자끼리 가르치거나 지원하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된다고 말한다. 성별, 종교, 피부색, 성적 지향 등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 교육 수준의 차이가 긍정적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다양성에 대한 상호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함양시킬 수 있는 수준별 포용성 교육이 요구될 것이다. 이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제적 여건인 소득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소득별 수준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영향이 달라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과 그 활동은 소득별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는 이주민 등이 소득이 낮은 계층에 적대적 경쟁 관계가 아니라 공생할 수 있는 기본적 인식을 전환시키는 교육 및 활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반

면,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는 다문화 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만큼 그들의 문화를 배우거나 언어를 학습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2) 일상생활 속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이주민들이 많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민들 상당수는 이주민과 전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개개인의 관계 형성 의지와는 무관한 경제적 여건으로 맺어진 관계일뿐이다. 즉 이주민과 친구, 동료, 이웃 등으로 지내면서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며, 대부분은 이주민과 관계를 맺지 않거나 다소 형식적인 관계에 머물러있다. 소득이 낮은 지역의 경우, 이주민들과 이러한 형식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주배경 집단과 부정적인 관계 경험이 다문화 수용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주민들과 긍정적인 관계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주 배경 집단과의 긍정적인 관계 경험을 확대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경험을 감소시키는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 교육의 양적 수준과 질적인 수준에서 부족한 실정이다. 다문화 교육 추진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의 내용과 질적인 수준의 전면적인 점검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 수용성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화된 교육 프로그램, 강사 양성 및 재교육 교과과정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소득이 낮은 지역에 선제적으로 다문화 교육, 다문화 활동 등 다각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정적 경험을 줄이기 위해 소득이 낮은 지역에 집단 간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 서로 직접 접할 기회를 통해 제공한다면 다문화 교육, 활동의 방향성 역시 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그 효과성 역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집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집단 간 이웃 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이미지 제고

대중매체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이주민 이미지 가운데 봉사활동이나 스포츠 등을 통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이주민, 한국인과 협력하는 이주민 이미지가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주로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이주민에 대한 모습들은 예능에 출연하거나 혹은 이주노동자의 힘든 현실, 범죄 사례 등을 부각하여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현실적인 여건상 이주민과의 직접적인 대면 관계 형성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오히려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각도로 보면 비교적 자유로운 온라인 콘텐츠와 대중매체의 중요성이 커져야 함을 시사한다. 다문화 수용성 정책에서도 인터넷, 대중매체를 통한 집단 간의 접촉과 소통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도 다문화 이해 공익 광고 및 홍보 영상의 목격 빈도가 적은데, 온라인이나 TV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이주민의 모습은 보지 못할뿐더러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할 수 있는 콘텐츠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어느 한 계층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낮추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자민족 중심주의가 강한 이들로 하여금 이주민들에 대한 경계심과 차별 등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 등을 고려한 스포츠, 음식, 여행 등을 테마로한 콘텐츠는 우리 한국 사회의 구성원인 이주민과의 소통을 증진하고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이주민들의 사회 공헌 홍보 영상, 공익광고는 부정적인 인식과 관계를 해소하는 방안이 되어 긍정적 영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한층 정교하고 현실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현재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을 독려하고 실제적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며, 윤리의식까지 경시되지 않을 수 있게 할 것이다.

4) 다문화 수용 규범 정립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

한국 사회는 여전히 귀속적인 요건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소득과 교육 수준에 따라 그 태도 역시 달라진다. 세계화에 따른 귀속적인 요건의 영향력이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여전히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요원하다. 한국 사회가 안정적인 다문화사회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주민과 그 자녀에 대한 차별, 혐오를 금지하고 다문화 수용성을 시민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로 확립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다문화 교육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제①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10조에서도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노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교육 시행 기관이 불분명하고 교육 대상인 시민의 책무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실효성을 담보하

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를 개정하여 그 시행 주체를 명확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교육 단계인 초등 교육 수준에서부터 다문화 교육 시행 의무를 교육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다문화 교육이 일회성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그 내용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을 소득별, 학력별 특징을 면밀히 고려한 교육과정을 개발, 그 수준에 따라 단계별, 영역별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또한 현장 강의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강정인(2003), “한국 보수주의의 딜레마”.신아시아연구소 10(3): 5-36.
2. 강현식(2010), 『꼭 알고 싶은 심리학의 모든 것』, 서울: 소울메이트.
3. 구견서(2003).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현상과 인식, 가을호. 29-53.
4. 김경근·이자형·이기혜(2015), 한국인 다문화 수용성 영향 요인들 간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수준의 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5(1): 1-28.
5. 김은재,(2021).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경험과 다문화 효능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임상보건과학회지 9.2: 1511-1519.
6. 김이선·황정미·이진영(2007).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 김석호 신인철 김병수 (2011).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효과 분해: 한국, 일본, 대만 비교연구. 한국인구학. 14(1) 129-157.
8. 김정호 (2009), “저숙련 외국인 유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정책연구시리즈 2009-15, 한국개발연구원.
8. 김창근(2008), “다문화 공존과 다문화주의: 다문화 시민성의 모색”, 윤리연구 , 제73호, 한국윤리학회.
9. 노성훈. 2013, "외국인의 증가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집단위협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vol.24, no.3 pp.151-184.
10. 맹진학(2009), “한국인의 다문화 배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사회복지정책, 제36권 3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1. 민지선·김두섭 (2013)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한국인구학》, 36(4): 71-94.
12. 민태은 (2013) “상징정치이론과 경제이익이론으로 본 한국인의 이민

자 태도” 《국제정치논총》 53(2): 215-247.
13. 안상수, 민무숙, 김이선, 이명진, 김금미(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 양계민・정진경. (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1), 97-115.
15. 양계민(2009),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4): 387-421.
16. 양계민.(2015),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다문화집단에 대하여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vol.29, no.3 pp.165-193.
17. 양계민·이우영(2016), “북한이탈주민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한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북한학연구』, 12(1): 71-105.
18. 여성가족부(2018).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19. 여성가족부(2021).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20. 오경석(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 한울아카데미.
21. 유경준·이규용 (2009), “외국인력의 현황과 정책과제”, 정책연구시리즈 2009-04, 한국개발연구원
22. 윤인진(2002).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23. 윤인진(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2집 2호, 한국사회학회.
24. 윤인진・송영호. (2008),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2009년 전기사회학대회 논문집.
25. 윤상우・김상돈. (2010).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26(1): 91-117.
26. 윤인진・팽정. (2021). ″한국인과 대만인의 다문화 수용성: 국민정체성과 국가자긍심의 효과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vol.64, no.1:

245-288.
27. 원숙연. (2017). “이주외국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용의 구조와 정책적 함의: 탐색적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 51(3): 225-256.
28. 이규용 · 박성재 (2008), “외국인력 고용구조와 영향”, KLI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9. 이다은・이윤아・고혜빈(2016),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과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상관관계 - 도농간 외국인 접촉 맥락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pp.588-604.
30. 이명진·최유정·최샛별. (2010).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11(1): 63-85.
31. 이장희(2021). 경제세계화의 주권국가 역할의 고찰. 한국공법학회. 49(3).1-30.
32. 이자형, 김경근. (2012).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교육수준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vol.22, no.3 pp.163-192. Available from: doi:10.32465/ksocio.2012.22.3.007
33. 이재기(2005). <국제통상론>.
34. 이시영. 재미교포의 민족정체성과 심리적 안녕. 2015.
35. 인태정(2009), “다문화사회 지향을 위한 인종의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적 다양성 태도 연구”, 제13권 2호, 국제지역학회.
36. 설동훈.『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37. 설동훈·이해춘 (2005), “외국국적동포 고용이 국내 노동시정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 효과 분석”, 노동부.
38. 신광영·정철희(2002). 한국사회의 전통과 민주주의. 한국사회학사. 36(3). 109-130.
39. 박호성(1989), “보수와 진보, 그리고 한국적 보수주의”,《언론과 비평》7:23-31.
40. 성경륭.(2001). 세계화의 딜레마: 세계주의와 국지주의의 갈등. 한국사회학 35(2): 29-57.
41. 이번송, 권주안 (1997). 외국인근로자고용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방

향, 송병준 외(저), 외국인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42. 장하경.(1996). 한국사회변동에 따른 혼례관행의 변화.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14 no.1-no.29. 147-162.
9. 정하나. 2016, "다문화 사회의 위협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한국인과 거주 외국인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vol.23, no.2 pp.83-112. Available from: doi:10.17000/kspr.23.2.201606.83
43. 정기선(2004).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국제비교연구: 자격요건 평가를 중심으로.「제1차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심포지움 발표자료집」. 81-94. 서울: 성균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
44. 최경수 (2013), "외국인력 유입의 내국인에 대한 영향", 경제학연구, 제61권 제3호, pp.153-194.
45. 함한희, 1995,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인종과 계급문제,"『한국문화인류학』 28: 199-221.
46. 황정미(2016), 사회적 위협 인식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 『아태연구』, 23(2): 311-346.
47. 황성식, 김두섭 (2020). "교육수준, 직업 및 지역에 따른 이민자 수용태도의 편차: 규범의식과 현실위협인식의 효과", 《한국인구학》 43(2): 1-26.
48. 황창호 & 윤창근.(2019), "국가정체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vol.28, no.1 pp.109-140. Available from: doi:10.22739/ipaid.2019.28.1.109
49. Barlow, F. K., S. Paolini, A. Pedersen, M. J. Hornsey, H. R. Radke, J. Harwood, M. Rubin, C. G., Sibley(2012), The contact caveat: negative contact predicts increased prejudice more than positive contact predicts reduced prejud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12): 1629-43.
50. Berg, J.A.(2009). Core networks and whites'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immigration policy. Public Opinion Quarterly, 73(1), 7-31.

51. Becchetti, L., F. Rossetti, and S. Castriota(2010). Real household income and attitude toward immigrants: an empirical analysis,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9, 81-88
52. Borgonovi, F.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Levels of Trust and Tolerance in Europe”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3(1): 146-167.
53. Blalock, H. M. (1967). Toward a theory of minority-group relations. New York: Capricorn Books. .
54. Blumer, Herbert. 1958. “Race Prejudice as a Sense of Group Position”. The Pacific Sociological Review 1, No. 1, pp.3-7.
55. Bobo, Lawrence. 1983. “Whites’ Opposition to Busing: Symbolic Racism or Realistic Group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5, No. 6, pp.1196-1210.
56. Campbell, Donald. 1965. “Ethnocentric and Other Altruistic Motives.” Donald LeVine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pp.283-311.
57. Cairncross, F. (1997). *The Death of Distance*(홍석기 역. 거리의 소멸). 세종서적.
58. Carter, O. L., & Pettigrew, J. D. (2003). A common oscillator for perceptual rivalries? Perception, 32(3), 295 - 305.
59. Castells, M. (1997). The Power of Identit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Inc.
60. Chandler, C. R. and Tsai, Y. M. (2001) “Social Factors Influencing Immigration Attitudes: An Analysis of Data from the General Social Survey” The Social Science Journal 38(2): 177-188.
61. Citrin J., Johnston R., Wright M. (2012). Do patriotism and multiculturalism collide? Competing perspectives from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 531-552.

62. David, B (2005), 『Us and Them』, New York: Little, Brown, and Company.
63. Drunker, P.F. (1993). *Post-Capitalist Society.* New York: Harper Business.
64. Gang, I. N. and Rivera-Batiz, F. L. (1994) "Labor Market Effects of Im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7(2): 157-175.
65. Esses, V. M., Jackson, L. M., & Armstrong, T. L. (1998). Intergroup competition and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immigration: An instrumental model of group conflict. Journal of Social Issues, 54(4), 699 - 724.
66. Ford, J. K., MacCallum, R. C., & Tait, M. (1986). The application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applied psychology: A critical review and analysis. Personnel Psychology, 39(2), 291-314.
67. Facchini, G. and Mayda, A. M. (2009) "Does the Welfare State Affect Individual Attitudes toward Immigrants? Evidence across Countri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1(2): 295-314.
68. Graf, S., S. Paolini, and M. Rubin(2014), 酸Negative intergroup contact is more influential, but positive intergroup contact is more common: Assessing contact prominence and contact prevalence in five Central European countries霰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4(6): 536-547.
69. Hainmueller, J. and Hiscox, M. J. (2007) "Educated Preferences: Explaining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in Europe" International Organization 61(2):399-442.
70. Hainmueller, J. and Hopkins, D. J. (2014) "Public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7: 225-24
71. Harvey, 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Oxford:

Blackwell.
72. Han, C. M. (1988). The role of consumer partriotism in the choice of domestic versus foreign products.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Vol. 27, pp. 25-32.
73. Hjerm, M., & Nagayoshi, K. (2011). The composition of the minority population as a threat: Can real economic and cultural threats explain xenophobia? International Sociology, 26(6), 815 - 843.
74. Hello, E, P. Scheepers, and M. Gijsberts(2002). Education and ethnic prejudice in Europe: explanations for cross-national variances in the educational effect on ethnic prejudice.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6(1), 5-24.
75. Kagan, S. (1995). Cooperative learning in the elementary ESL classroom. ERIC. ED382035.
76. KDI. 세계화. 접속일자: 2022.11.26. 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200001000 0100011&idx=155
77. LeVine, R. A. and Campbell, D. T. (1972) Ethnocentrism: Theories of Conflict, Ethnic Attitudes, and Group Behavior, Oxford: John Wiley & Sons.
78. M. Semyonov et al((2000). Racial composition and occupational segregation and inequality across American cities. Social Science Research.
79. Min, M. S., An, S. S., Kim, E. S., Kim, K. M., Ryu, J. A, Cho, Y. K. (2010). Korean multiculturalism acceptability inventory. Seoul: Social Integration Commiittee
80. Nagayoshi, K.(2011). Support of multiculturalism, but for whom? Effects of Ethno-national identity on the endorsement of muticulturalism in Japan.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7(4), 561-578.

81. Nunnally, J. C. (1967). Psychological Theory. NY: MacGraw-Hill.
82. Quillian, Lincoln. 1995. “Prejudice as a Response to Perceived Group Threat: Population Composition and Anti-Immigrant and Racial Prejudice in Europ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No. 4, pp.586-611.
83. Raijman, Rebeca, & Moshe Semyonov. 2004. “Perceived Threat and Exclusionary Attitudes towards Foreign Workers in Israel.” Ethnic and Racial Studies 27, No. 5, pp.780-799.
84. Rosenberg, M.J. and Hovland, C.I. (1960)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Components of Attitudes. In: Rosenberg, M.J. and Hovland, C.I., Eds., Attitude Organization and Change: An Analysis of Consistency among Attitude Components,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85. Scheepers, Peer, Mérove Gijsberts, & Marcel Coenders.(2002). “Ethnic Exclusionism in European Countries: Public Opposition to Civil Rights for Legal Migrants as a Response to Perceived Ethnic Threat.”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8, No. 1, pp.17-34.
86. Scheve, K. F., and Slaughter, M. J. (2001) Labor market competition and individual preferences over immigration polic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1), 133-145.
87. Sharma S., Ship T. A & Shin. J. (1995). Consumer ethnocentrism: A test of antecedents and moderator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 23 No. 1, pp. 26-37.
88. Shepherd, G., & Regan, W. (1981). Modern elementary curriculum (6th ed.). Oklahoma City, OH: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89. Shimp T. A. and S. Sharma(1987), Consumer Ethnocentrism: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CETSCAL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4(3), 280-289.
90. Tajfel, H. and Turner, J.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pp. 56-65 in Organizational Identity, edited

by Hatch, M. J. and Schultz, M.,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91. Ueffing, P., Rowe, F. and Mulder, C.H. (2015).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s Immigration between Australia and Germany: The Role of Immigration Policy. Comparative Population Studies. 40, 4 (Dec. 2015).
92. Jackson, J. S., Brown, K. T., Brown T. N. and Marks, B. (2001) "Contemporary Immigration Policy Orientations among Dominant Group Members in Western Europe"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431-456.
93. Vedlitz, A. and S. Zahran(2007). Theories of ethnic social distance: Comparative empirical tests for three distinct ethnic groups. Sociological Spectrum, 27, 585-603.
94. Verberk, G., Scheepers, P., and Felling, A., (2002), Attitudes and behavioral intentions towards ethnic minorities: an empirical test of several theoretical explanations for the Dutch case.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8(2), 197-219.
95. Visintin, E. P., E. G. Green, A. Pereita, and P. Miteva (2017), How positive and negative contact related to attitudes toward Roma: Comparing majority and high-status minority perspectives.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7(3): 240-252.
96. Wright, M. (2011) "Diversity and the Imagined Community: Immigrant Diversity and Conceptions of National Identity." Political Psychology 32, No. 5, pp.837-862.
97. '불법 체류 외국인=범죄자'라는 인종혐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기사입력: 2019.10.17. 접속 일자: 2022.10.05.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61531

Abstract

The Effect of Korean Perception on Multicultural Acceptance - Focusing on the Realistic Conflict Factors -

Lee, Kyungjoo
Master of Public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in Korean society. It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ethnocentrism and globalization consciousness on multicultural acceptance due to

the increase in foreign workers and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education, and employment status as moderating effect variables on multicultural acceptance. For this study,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data in 2018 was used for the data, and it was analyz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basic statistics. In conclusion, the variables of globalization and self-ethnicism had a positive (+) and negative (-) effect on multicultural acceptance. It was found that the moderating variables(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education, and employment status) partially affected multicultural acceptance.

Keywords : Multicultural Acceptance, Globalization, Ethnocentrism, Realistic Conflict, Attitudes toward Immigrants. Migrants

Student Number : 2020-22697